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면접심의 심의평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면접심의를 서류심의에서 선정된 예술인들 간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심의를 과정에서 오갔던 담화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게 해주었다.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대체적인 견해도 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때 이른 것일 수 있겠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정착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져본다.

서류심의에서 선정된 지원자들이 제시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수의 심의위원들이 지원자들에 대한 공동면접을 시행했다. 이러한 심의가 방법론적으로 유효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에 더 해 일정한 학습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다.

이번 심의에서는 심의위원이 토론면접에서의 모더레이터 역할을 겸하여 진행했다. 모더레이터에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과 관련된 여지가 주어지긴 했지만, 토론면접의 주제는 대체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성격에 대해 치우치지 않은 이해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기업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기업이나 파견된 팀의 동료 작가들에 의해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그 갈등이 협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주요한 주제로 주어졌다.

미술장르를 심의한 1조의 경우는 다양한 작업경력과 기존 참여예술인 및 퍼실리테이터 경험자들의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인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높았다. 막상 토론에서는 유경험자와 처음 지원한 비경험자들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확산, 예술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지원 예술인들의 높아진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모더레이터들은 토론주제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여러 개연적인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이해와 해석, 대응에 대해 살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같은 포괄적인 질문이 제시되기도 했다. 거의 대부분 현직 예술가들이라 토론은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에 있어 다소 소극적으로 임하는 지원자들도 있었다. 토론 협의의 자세에 있어 배려가 다소 부족하거나,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에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미술, 영화, 만화, 사진, 건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작가들이 포함된 2조의 경우에도 토론 형식의 심의가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었다. 이 방식을 통해 지원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임하는가를 비교적 잘 파악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참여예술인의 역할과 사업의 취지를 잘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소통능력 및 협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 토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사업에 처음 지원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해도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참여의지가 분명하게 피력되고 예술활동 경력이 건설하게 뒷받침되는 지원자들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 미미한 차이를 제외하면, 심의위원들 간의 큰 이견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다. 각 위원들이 보았던 관점들은 토론을 통해 조율되었으며,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이 최우선시 되었다.

무용과 연극 분야를 심의한 3조에서도 지원자의 사업이해 수준이 2016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예술인들의 사업이해 수준을 높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2016년도 성과사례집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원 예술인들의 토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사례집을 통해 공유된 사례가 가이드로 작동되어, 오히려 상상의 폭을 제한하는 역기능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다년도 사업참여자들이 기존의 경험에 갇혀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는 경우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성과사례집의 내용, 그리고 정책적으로 신규 참여자의 비율을 결정하고, 기존 참여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지원자들의 토론을 통해 사업 기간의 확장성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사업을 할 만할 때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의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기관-퍼실리테이터-참여예술인들이 사업을 연장 또는 2년 연속 활동 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의 신설을 검토해 보는 것 등이 제기되었다. 기업·기관 매칭 시 기존에 협업 작업 경험이 있는 동료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음악, 국악, 문학, 대중예술 등의 분야가 포함된 4조에서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자유토론 형식은 대면심사가 지니는 경직성을 개선해 지원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환경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주제로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을 의견이나 입장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 등을 파악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를 이뤘다. 어떤 모범적인 행동유형 등에 대한 규범적인 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이디어나 실행계획을 어떤 근거와 논리로 이야기 하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자 했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려 깊고 상대를 존중하는 제안을 해주어서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특별히 기대된다. 아울러 예술인 사이에서도 보다 나은 생태계의 일환으로 작동할 것 같다는 기대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 중심의 예술 활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교육 사업으로만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등의 경직된 견해, 논리의 편협함으로 소통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경험이 많은 예술인들로부터는 타성에 젖은 듯한 활동보다는 새로운 활동이 더 개진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다.

많은 예술인들이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했다. 하지만 선정인원의 제한이라는 부득이한 조건으로 인해 상대적 평가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심의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자부한다. 선정된 예술인들의 활약을 통해, 팍팍한 시대를 사는 예술인들과 그들을 맞이해 함께 사업을 도모할 기업·기관에 보다 생기가 넘치고, 따듯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의 변모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이 이 사업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증명하고 그 성과를 시대와 공유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기에 그렇다.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도 남은 2017년에 각각 큰 도약들이 있기를 바란다. 토론심의를 통해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면모들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심의위원들 모두에게 특권이였다. 거듭 모든 예술인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